

“연패 사슬 끊자”...페퍼스 안방서 반전 노린다

오늘 GS칼텍스와 홈 경기...2라운드서 승리 '좋은 기억' 있어
꾸준한 활약 야스민 기대...트린지 감독 "리시브 안정화 노력"



“8연패” 페퍼스가 GS칼텍스와 안방경기에서 연패탈출을 노린다.

광주 여자프로배구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는 15일 오후 7시 홈구장인 페퍼스타디움에서 GS칼텍스 KIXX를 만나 대결을 펼친다. 지난 12일 열린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와의 경기에서 완패하며 8연패를 기록한 페퍼스가 연패의 늪을 탈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페퍼스는 현대건설과의 대결에서 그동안 자신 있던 블로킹에서 밀렸다. 페퍼스는 블로킹 득점에서 4-13으로 큰 차이를 보이며 현대건설에 승리를 내어줬다. 야스민과 이한비가 각각 26득점, 10득점을 올리며 분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이날 현대건설에 0-3으로 졌다.

페퍼스는 승점6(2승 13패)으로 7개 팀 중 유일하게 승점 10점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GS칼텍스는 현재 승점25(9승 6패)으로 3위다.

GS칼텍스는 지난 9일 흥국생명전에서 3-1로 승리했다. GS칼텍스 실바가 블로킹 득점 1점을 포함해 총 27득점을 올리며 활약했다.

페퍼스는 이번 시즌 GS칼텍스를 상대로 한 차례 승리한 경험이 있다.

지난달 10일 열린 GS칼텍스와의 2라운드 경기에서 페퍼스는 세트점 접전 끝에 3-2(17-25 26-24 24-26 25-21 15-10)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페퍼스는 당시 4연패의 사슬을 끊어 내기도 했다.

당시 페퍼스는 공격 성공률을 각 세트마다 차차 높여가며 경기를 펼쳤다. 야스민은 개인 한 경기 최다 득점인 45득점을 올리며 활약했다. 페퍼스는 블로킹에서 GS칼텍스보다 4점 많은 11득점을 기록했다. 다만 리시브 효율은 페퍼스(12.24%)가 GS칼텍스(26.88%)보다 낮았다.

페퍼스의 가장 큰 숙제는 리시브 안정화다.

지난 12일 조 트린지 감독은 “리시브 안정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스탯상으로 1라운드보다 2라운드서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보완할 점이 아직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페퍼스가 리시브 고민을 해결하고 GS칼텍스와의 홈경기에서 연패 탈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AI페퍼스가 GS칼텍스와의 지난달 10일 경기에서 득점에 성공한 후 기뻐하고 있다. <한국배구연맹 제공>

집단행동 나선 PGA 선수 “LIV 동업 협상 내용 공개하라” 21명 서명 편지 이사회에 전달

마침내 선수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와 LIV 골프 합병을 포함한 동업 협상에 나선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정책이사회는 최근 PGA 투어 선수 21명이 서명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이들 선수를 대리한 제이컵 부크달 변호사는 “PGA 투어의 구조를 바꾸고 수백명의 PGA 투어 선수들의 삶과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 제안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고 편지 내용을 14일(한국시간) 골프위크에 밝혔다.

이 편지는 또 “지금까지 진행돼 왔고 앞으로 진행될 과정, 그리고 양측이 무슨 이익과 손실을 볼 건지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 선수는 이 협상 내용, 협상이 선수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전혀 알지 못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한마디로 PIF와 협상 내용을 더 투명하게, 더 많이 밝히려는 요구다.

PGA 투어와 PIF는 지난 6월 PIF와 손잡고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동업 협상을 시작했다고 전적으로 발표한 뒤 지금까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LIV 골프를 PGA 투어와 합병하는 방안도 이 협상안에는 들어있다. 최근에는 스포츠 투자 그룹을 협상에 참여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협상 진전 내용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연합뉴스



공중볼의 주인공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 풋프린트 센터에서 열린 NBA 브루클린 닷츠와 피닉스 선즈의 경기에서 양팀 선수가 공중볼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

추신수, SSG서 2024년까지 뛰고 은퇴

연봉은 17억원→3000만원

추신수(41·SSG 랜더스·사진)가 2024시즌까지만 뛰고, 현역 생활을 마무리한다.

프로야구 SSG는 14일 “추신수가 2024년, 한 시즌을 더 뛰고서 은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추신수는 구단을 통해 “비시즌 동안 가족과 함께(은퇴와 현역 연장을 두고)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럴 때마다 SSG와 팬분들의 응원, 무엇보다 후배 선수들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며 “그만큼 야구와 팀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고 느껴 구단과 진로를 함께 고민했다. 구단도 신임 감독님도 나를 필요로 했고 내 의견을 존중해 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퓨처스(2군) 팀에서 후배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나의 경험과 생각들을 공유하는 등 팀에 공헌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추신수는 KBO리그 최장신 3000만원에 2024시즌 연봉 계약을 하며, 구단의 자금 흐름에도 도움을 줄 생각이다.

올해 추신수의 연봉은 17억원이었다. 연봉 3000만원도 전액 기부할 생각이다.

추신수는 “현역 마지막 해”인 2024년에 기부와 다양한 팬 서비스도 약속했다.

추신수는 “2001년부터 미국과 한국에서 야구를 해온 23년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시즌인 만큼 그동안 응원해 주신 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홈, 원정 팬 관계없이 뜻깊은 추억을 선물하고 싶다”고 밝혔다.

마지막 시즌에 추신수는 SSG 완장도 찬다.



이승용 SSG 신임 감독은 “추신수가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선수단의 많은 존경을 받는다”며 주장을 펼칠 바랐다. 추신수는 이 감독의 뜻을 받아들였다. /연합뉴스

전남드래곤즈, 광양제철소와 ‘희망골 전달식’

홈경기 끝 나올 때 마다 적립...나눔복지재단에 쌀 6400kg 기부



좌측부터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김재경 이사장, 전남드래곤즈 이광수 사장, 광양제철소 이철호 부소장.

전남드래곤즈가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희망골 전달식’을 갖고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에 20kg 쌀 320포를 전달했다.

지난 2012년 전남드래곤즈, 광양제철소,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은 MOU를 체결해 매년 감사나눔 희망골을 적립하고 있다. 홈경기에서 끝이 나올 때마다 전남드래곤즈와 광양제철소는 각각 100kg 쌀을 적립해, 시즌이 끝난 뒤 기부하고 있다.

이번 시즌 홈에서 진행된 18경기에서 32포가 나오면서 쌀 6400kg(1760만원 상당)이 모였다.

2023시즌 ‘공격 축구’를 선보인 전남드래곤즈는 36경기에서 55골을 넣으면서 전체 13개 팀 중 득점 3위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기록된 전남의 최다 골이다.

외국인 선수 발디비아가 화력의 중심이 됐다. 발디비아는 14골을 넣으면서 김포FC 루이스(17골)에 이어 득점 2위를 기록했고, 도움 부문에서는 14개로 1위에 올랐다.

28개의 공격포인트를 만든 발디비아는 시즌이 끝나고 진행된 K리그 시상식에서 K리그2 MVP에 등극했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희망골’을 통해 적립된 쌀은 총 5만7600kg(백미 20kg 기준 2,880포대)에 달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LOTTE CINEMA | 증장로관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서울의 봄
- 2관 서울의 봄, 쏘우 X
- 3관 쏘우 X
- 4관 서울의 봄, 노 엑시트
- 5관 서울의 봄
- 6관 서울의 봄, 미끼
- 9관 3일의 휴가
- 7관씨네극물 상글 인 서울, 말하고 싶은 비밀
- 8관씨네극물 나폴레옹, 비밀, 배트맨

2023년 광주상설공연(12월)
일시 : 2023-12-01(금) ~ 2023-12-22(금)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2023 달빛동행 교류공연
무치니, 오메라 (나비부인)
일시 : 2023-12-15(금) 19:30
2023-12-16(토) 15: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412-2502